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 임흥순
무겁다
 아시아 여성노동자 생각에
담겼다
 각 나라 터부시 되는 것 작품에

“영화 자체가 40년 동안 봉제공장에서 ‘시다’로 일한 어머니, 오랫동안 백화점 매장과 의류매장에서 일한 여동생의 삶에 영감을 받고 진행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9일(현지시간) 은사자상을 받은 임흥순(46) 작가는 “기쁘다”면서도 “영화작품의 내용처럼 아시아와 한국의 노동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작가는 자신이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자나 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표현방식을 계속 고민해 왔다.

수상작품 ‘위로공단’은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소외 계층의 삶을 다룬 2채널 비디오 작품 ‘추억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위로공단’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여성노동자로 시선을 확장시켰다.

영화 마지막 부분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의 어머니는 3년 전 대상포진으로 봉제공장을 그만뒀다.

임 작가는 시상식에서 “광주비엔날레에 3회 참여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작가로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저를 키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도 시상식에 참석해 임 작가의 수상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작품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임 작가에게는 영화감독, 비주얼 아티스트, 설치미술 작가 등 여러 호칭이 동시에 붙는다. 다큐멘터리 영화 ‘비넵’이 정식으로 극장 개봉했고 ‘위로공단’이 서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동시에 그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이후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활발히 작품을 전시해 왔다.

그의 작품은 사회성이 짙다. 전작인 다큐멘터리 ‘비넵’은 제주 4·3사건과 제주 강정마을 이야기를 다뤘고 이번 ‘위로공단’은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그는 “작품을 통해 현실을 설명한다기보다는 현실을 얘기해주면서 일종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어 “예술이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하고 싶은 작품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터부시 되는 부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며 “한국사회에서 미술작가들이 죽음을 많이 다루는데, 저도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민중미술 1세대인 임옥상 작가가 지난 9일 오후 5시18분부터 12시간 동안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에 사람들의 모습을 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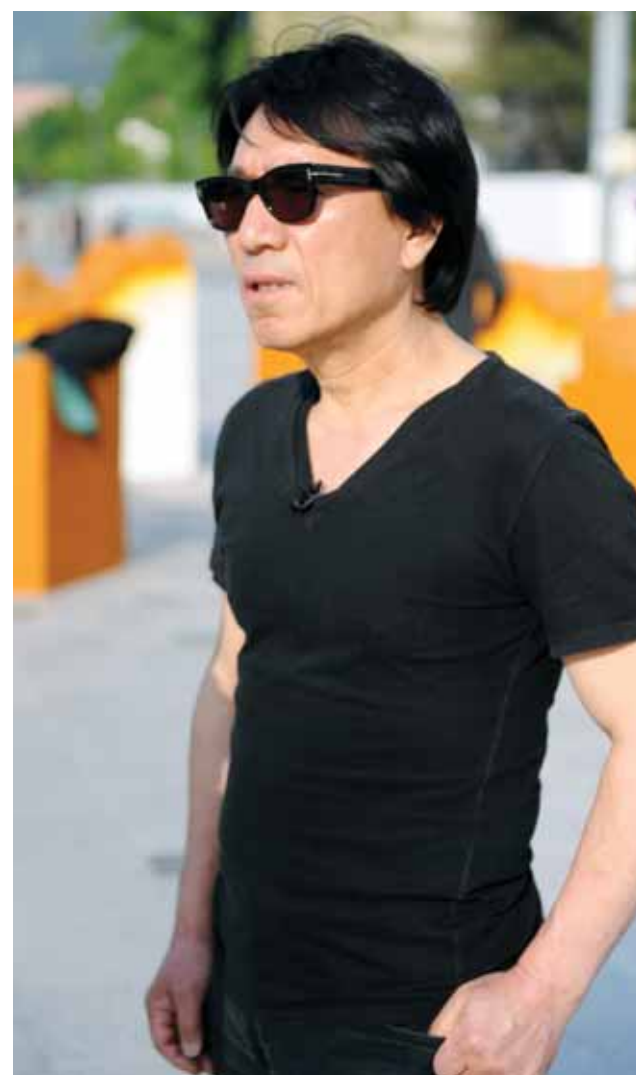
사람을 보고 싶었다, 평등 넘어 무등에 올라

임옥상, 옛 도청앞 ‘무릉무등’ 퍼포먼스

조형물에 시민들 글 쓰고 그림 그려

광주교대 교수 시절 5월 참상 목격

20년만에 광주전... 15~26일 메이홀



지난 9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평화광장에 작은 무등산이 놓였다. 오후 5시18분 ‘남을 위한 행진곡’을 차임벨로 편곡한 종소리가 민주광장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자 민중미술 1세대인 임옥상 작가와 시민들이 사람의 형상을 그려 무등산에 세우기 시작했다. 다양한 포즈를 하고 있는 사람 모습의 아크릴판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글이 입혀졌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슈퍼맨을 그리기도 했고, 끈에 뽕은 나무를 그리기도 했다. 11살 동갑내기 친구 서연아와 은별이는 자신의 모습을 예쁘게 색칠했고, 12살 예진아도 곰인형을 안고 달리는 모습을 정성스레 그렸다.

‘나’와 ‘너’, 민주주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 등을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내려간 시민도 있었고, ‘누가 너를 남과 북으로 갈라 놓았느냐’, ‘혼자 외롭지, 둘이면 외롭지 않아 같이 가’ 등 글귀를 쓴 학생도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여고 1학년 학생이었던 50대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무대를 지나 금남로를 걸었다. 피의 거리를...”이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메이홀에서 신작초대전을 여는 임옥상 작가의 ‘무릉무등’ 퍼포먼스로, 오후 5시18분에 시작해 다음날인 10일 오전 새벽 5시18분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계속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20년 만에 광주에서 전시를 여는 임 작가는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말로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평소 ‘백 없는 미술관’, 공공미술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강조해왔다.

“사람을 보고 싶었다. 나는 광주의 무등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등급이 없다는 그 말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의미다. 무등은 평등의 다른 말이다. 우리 모두 평등이라는 무등에 올랐으면 한다. 시민들이 각자의 분신을 그려 무등을 가득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가 혼자 완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는 예술가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

밤이 되고, 새벽이 찾아오면서 인적이 줄어들었지만 임 작가는 현장을 끝까지 지켰다. 이따금 술을 한잔 걸치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외국인들이 새벽 쌀쌀한 공기를 뚫고 있는 작가를 찾아왔다.

임옥상미술연구소 관계자와 광주지역 퍼포먼스팀 ‘데블스’가 행사를 도왔고, 메이홀 식구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줬

다. 12시간 동안 그렇게 무등산에 오른 시민들의 작품은 500여 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모두 2000여 개가 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목표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랜만의 광주 방문은 임 작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5·18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이자 나의 길, 방향 그리고 끝이기 때문이다. 80년 5월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분들을 만나 내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다. 전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묻겠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광주는 무엇인가.”

임 작가는 80년 5월 광주에 있었다. 아니 광주의 소식을 듣고 부라부라 달려왔었다. 1979~1981년 광주교육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그해 5월17일 서울에서 열릴 전시 개막식에 참석하려던 차였다.

“전주 자택에 있었는데 전남(16일) 광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17일 오전 8시 차를 타고 곧장 광주로 내려왔다. 터미널에는 짐은 안개가 깔렸었고, 광주는 쥐 죽은 듯 조용했었다. 군인들의 3차레 검문을 거쳐 학교에서 들어갔고, 거기에서 다른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교수들의 함에 밀려 광주를 떠나야만 했다. 다시 광주에 왔을 때는 초도화된 이후였다. 그때가 꼭 서른 살이었다.”

전시에서는 시민과 만든 설치작품과 함께 캔버스에 흡으로 그린 무등산과 사람들의 얼굴, 대한민국헌법봉 등 임 작가의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특히 예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서인 발상인데 광주에서 그랬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참피하다”고 말했다.

평소 사회참여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온 임 작가는 세월호 문제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실을 밝혀줘야 하고 그것에 전착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손바닥도 앞뒤가 있듯 그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동시에 나아가야 한다. 저런 비정상적인 권력과 끊임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나? 올바른 역사는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무등 정신은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갈등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 무등 정신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광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배타적 무등은 무등이 아니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 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임,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